

‘전남서 한 달 살기 3색 테마... 취향껏 고르세요

# 농촌형

팜파티·일손돕기·체류지 보기...귀농·귀촌 체험



전남에서 ‘한 달 살기’를 체험할 기회가 생겼다. ‘한달을 살아도 다르게’라는 최근의 여행 트렌드를 즐기는 이들을 위해 이른바 ‘농촌형’, ‘청년형’, ‘여행용’ 등 3가지 테마로 나뉘었다.

전남지역 한 곳에 느긋하게 머물며 현지인의 삶에 녹아들어 일상의 즐거움을 느끼는 여행이라는 점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느낄 수 있는 공통점이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농촌형-전남지역 17개 시·군 30개 마을과 농가에 머물면서 다양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도시를 떠나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들로, 전남지역 이외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여촌(섬)인 금요도·청산도·자운도를 비롯, 장성 별내리·화순 들국화·담양 운수대통마을(농·산촌), 나주 예곡왕곡·곡성 가장·고흥 금요·영암 왕인박사마을(농촌) 등 체험 마을도 많다.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 머무르며 팜파티, 마을 일손돕기, 체류지 둘러보기, 주민과의 간담회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체류 기간 숙박비는 전액 무료로 체험비도 지원받는다. 식비·교통비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한달 살기를 해보면서 귀농·귀촌을 위한 결심을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오는 14일까지 1차 참가자를 모집한 뒤 15일부터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 청년형

마이웨이·행복캠프...문화·예술 창업 아이템 개발

# 여행용

목포 세일링 요트·여수 섬 막걸리 투어 등 문화·역사 체험

350개팀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이여, 전남에서 ‘한달 살아보기’=39세 이하 청년들만을 위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도 참신하다. 지역 청년단체들과 연계한 프로그램이라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도록 짜여졌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물론, 전남이 아닌 다른 곳에 사는 청년들이어야 한다. 숙박비는 무이다. 순천·화순·고흥·무안·영광 등에서 30일

간 진행한다. 순천의 경우 ‘은전히 나담개, 하이든과 마이웨이’라는 프로그램과 ‘원도심 한달살기 청년행복캠프’ 등 2개로 나뉜다. ‘마이웨이’는 30일간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며 순천 구석구석을 돌며 지역에서의 성공기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년행복캠프’는 한달간 원도심 빈집을 리모델링한 청년 쉼어하우스에서 머물며 다양한 문화·예술을 공유하는 게 특

점이다. 문화·예술 창작에 관심을 갖고 있는 1인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한다.

고흥지역 폐교 관사를 리모델링한 청년 쉼어하우스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청년 드림 마켓’ 프로그램은 청년 창업농부를 꿈꾸는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며 무안 지역에서는 운영되는 ‘강·산·바다·봄은 황도랑 함께, 도시탈출! 무한도전’ 프로그램도 청년들이 지역민과 교류하면서 창업아이템 등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영광지역 빈 집을 리모델링해 운영하는 내 청춘의 텃밭포인트 글로리 영광살이’도 한 달 간 살면서 귀농·귀촌, 관광·힐링형으로 나눠 체험하도록 프로그램을 꾸렸다.

◇한 달동안 전남 여행하기=‘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프로그램은 전남지역 한 곳에 머무르면서 지역 문화예술과 역사자원 콘텐츠를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광주·전남 이외 지역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다. 7일 이상 30일 이내 기간, 하루 5만원 이내의 숙박비를 지원한다. 특히 목포 세일링 요트와 해상게이볼, 여수 섬 막걸리 투어, 담양 송마체험, 곡성 레포츠 여행, 고흥 팽배 지류프로그램 등 다른 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시·군이 운영하는 민간에서 위탁한 자연휴양림, 유스호스텔, 펜션, 농어촌체험마을 등 76곳에서 숙박하면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18년 국유재산 가치 1076조원

# 경부고속도로 12조 ‘최고가’ 亞문화전당 3076억원 ‘3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정부가 보유한 건물 중 재산 가치가 3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유 재산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은 12조원이 넘는 경부고속도로로 조사됐다. 국유 건물 중에서는 정부세종청사, 물품 중에서는 기상청이 보유한 슈퍼컴퓨터가 가장 비쌌다.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작년 국유재산 가치는 1076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000억원(0.1%) 증가했다. 국유재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토지(466조6000억원), 공작물(285조2000억원), 유가증권(241조7000억원), 건물(69조7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국유재산 가치는 2016년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뒤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유 건물, 유·무형자산, 고속도로 등 국유재산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은 장부가액 12조 1316억원인 경부고속도로(서울~부산)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9440억원 가치가 높아졌다. 고속도로 중 두 번째로 비싼 것은 서해안고속도로(서울~

목포)로 6조7063억원이었다. 3위는 남해고속도로(부산~순천)로 6조 3232억원이었다.

국유 건물 중 가장 비싼 것은 기획재정부 등이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1단계로 장부가액이 4천502억원이었다. 2위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사용하는 정부세종청사 2단계(4천68억원)였다. 정부세종청사 1단계와 2단계를 합친 장부가액은 8570억원에 달한다. 3위는 광주시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3076억원을 기록했다.

국가 무형자산 중 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관세청이 보유한 ‘4세대 국가 관세종합정보망’으로, 취득가액은 1007억원이다. 이어 국세청이 보유한 ‘차세대 국세 행정시스템 2단계’(694억원), 기재부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353억원) 순이었다.

작년 국가가 보유한 물품 가치는 12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000억원(7.0%) 증가했다. 물품 중 가장 비싼 것은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4호기(누리와 미리)로 장부가액은 262억원이었다. /연향뉴스

# 광주·전남 관광할인카드

## ‘남도패스’ 온라인도 판매

광주·전남 통합관광 할인카드인 ‘남도패스’를 2일부터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남도패스는 지난해 10월 출시된 이후 광주·전남, 전남도청 등 판매처(7곳)에서 현장 구매만 가능해 불편을 호소하는 사용자들이 적지 않았다. 전남도 등은 온라인 판매를 기념해 1만장 한정 무료 배송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현장 판매처를 광주·전남 관광안내소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남도 패스는 전국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한 선불·충전형 결제 카드로 주요 혜택은 제휴가맹점인 전국 70개 프랜차이즈 260만개 매장 최대 60% 할인, 광주·전남 주요 관광지 숙박·교통·관광시설 이용 최대 60% 할인이다. 모바일 코나 카드 앱을 설치하고 카드 등록 후 계좌를 연결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충전·사용이 가능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세월호참사 재수사 하라”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광화문 광장에서 하고 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수업과 청와대 청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광주 대인시장 야시장 ‘아장아장’ 6일 첫 개장

광주시는 대인예술야시장이 6일 오후 7시 오후 처음으로 문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야시장은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에 구성된 ‘전통타악연구회 두드러’의 길놀이 타악이 퍼레이드로 시작한다. 이어 시민참여로 진행되는 마술 퍼포먼스 ‘Crazy Mr. J’(김광중)의 ‘이상한 마

술사의 웃긴 탈출’, 향수를 불러 일으킬 ‘이말골(이정숙)의 추억의 복고 뮤지’, 다문화 밴드 ‘드리머즈’ 공연이 선보인다. 일반인과 예술가가 참여한 핸드메이드 예술품을 판매하는 ‘셀러존’, 가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존’이 운영된다. 또, 색 모래 페인팅과 길거리 마술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버려진 물건을 활용

해 작가와 시민이 작품을 만드는 포토존, 이색 씬터 등이 마련된다. 한평갤러리에서는 지역 청년작가 초대 전인 ‘환기(換氣)’(손연우·윤석돈), 아트 컬렉션식 수작에서는 성혜림, 한은혜, 이재원 등 지역 작가 20여명이 전시회가 열린다. /오영록 기자 kroh@kwangju.co.kr

# “독립운동가 나철 선생, 사진 합성 사과하라”

## 보성군, 영화 ‘사바하’ 측에 시정 촉구

보성군은 영화 ‘사바하’ 측이 독립운동가인 홍암 나철(1863~1916) 선생의 합성 사진을 영화에 쓴 것과 관련해 시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보성군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독립운동가의 정신적 지주였던 나철 선생의 사진을 사바하 교주로 둔갑시킨 것은 선생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선생의 고향인 보성의 이미지도 크게 실추시킨 행위”라며 “제작사의 사과와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에 있는 홍암 나철 선생 기념사업회도 오는 4일 영화 제작사를 항의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성군은 “영화 제작사 측이 구두로만 사과를 했는데 아직도 IPTV 등에서는 문제의 장면이 수정되지 않고 여과없이

방송되고 있다”며 “현실적인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영화 ‘사바하’에서 나철 선생의 사진이 배우 정동환이 연기한 사바하 교주 김제석의 사진으로 얼굴만 바뀌어 사용됐다는 논란이 빚어졌다. 홍암 나철 선생은 보성군 벌교읍 칠동리 금곡마을에서 태어나 1904년 본격적인 독립운동의 길에 뛰어들었다. 오기호, 이기 등과 함께 대일외교항쟁과 을사5적 처단 등 국운운동 등을 굽지 않은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정부는 1962년 나철 선생에게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했다. 보성군은 나철 선생 생명 100주년을 2016년에 홍암·나철기념관을 건립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QR code and social media links for Kwangju Information News Facebook page.

#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공고 2019 - 5호

# 2019년 매립지등 간척지 임대공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영산강지구 매립지등 간척지에 대한 임대사업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Table with 5 columns: 임대구분, 면적, 수급, 임대료, 비고. It details the types of land (e.g., 1st, 2nd, 3rd order reclamation) and their respective rental rates and conditions.

1. 임대대상 매립지등: Details on the first category of land, including area and rental rates.
2. 임대대상 간척지: Details on the second category of land, including area and rental rates.
3. 임대대상 간척지: Details on the third category of land, including area and rental rates.
4. 임대대상 간척지: Details on the fourth category of land, including area and rental rates.

5. 신청서류: Application documents including application form, site plan, and other required documents.
6. 임대대상 간척지의 평가 및 선정: Evaluation and selection process for the third category of land.
7. 신청기간: Application period from April 4, 2019, to April 16, 2019.
8. 임대대상 간척지: Details on the fourth category of land, including area and rental rates.

9. 임대대상 간척지: Details on the fifth category of land, including area and rental rates.
10. 유의사항: Important notes regarding the application process, including deadlines and contact information.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